

텍스투스 레캡투스의 기원에 대한 고찰 -에라스무스 본문의 특징을 중심으로-

민경식*

1. 서언

1.1. 텍스투스 레캡투스라는 용어의 탄생

17세기의 출판업자 집안의 두 사람, 보나벤투어 엘제비어(Bonaventure Elzevier)와 아브라함 엘제비어(Abraham Elzevier)는 자신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2판(1633)을 출판하면서, 발행인의 서문에 다음과 같은 추천 문구를 넣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이제 모두에 의해 **수용되는 본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는 본문에다 변경되거나 잘못된 것을 결코 넣지 않았습니다.¹⁾

시중에 여러 종류의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유통되고 있던 당시에,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출판한 성서의 본문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본문이니, 그리스어 성서를 사려거든 이것을 사라고 권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구절에서 ‘수용본문’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것을 흔히 ‘공인본문’이라고 하며, 음역하여 ‘텍스투스 레캡투스’라고도 한다.²⁾ 이것이 바로 텍스투스 레캡투스의 좁은 의미이며, 넓은 의미에서의 텍스투스 레캡투스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물론 오늘날에는 좁은 의미에서의 텍스투스 레캡투스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넓은 의미에서의 텍스투스 레캡투스는 1516년의 네덜란드의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von Rotterdam, 1469-1536)의 그리스어

* 연세대학교 교수, 신약학.

1)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 in quo nihil immutatum aut corruptum damus.*

2) 이하에서는 텍스투스 레캡투스라고 하겠다. 텍스투스 레캡투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ruce M. Metzger and Bart 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4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95 이하;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62.

신약성서³⁾에서 시작되어 1881년 영국의 두 학자 웨스트콧(B. F. Westcott, 1825-1901)과 호트(F. J. A. Hort, 1828-1892)의 그리스어 신약성서⁴⁾가 나오기 직전까지 서구 유럽을 지배하던 형태의 신약성서 본문을 가리킨다.⁵⁾ 당시에 출판되던 모든 신약성서들의 본문이 엘제비어의 본문과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1.2. 텍스트스 레캡투스에 속하는 신약성서들

『개역한글』(1961), 『개역개정』(1998), 『공동번역』(1977), 『새번역』⁽⁴⁾(2004) 등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한글성서의 신약 본문은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아니다. 영어의 경우에도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이라든지 『개역표준』(*Revised Standard Version*, RSV), 이 외에도 기능동등성⁶⁾ 이론을 바탕으로 번역된 『현대어영어성서』(*Contemporary English Version*, CEV)나 『투데이영어성서』(*Today's English Version*, TEV) 등은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아니다. 반면에 텍스트스 레캡투스에 속하는 번역으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애독된 것들로 영어역으로는 『제임스왕역본』(*King James Version*, KJV)⁷⁾이 있으며, 독일어역으로는 『루터성서』(*Lutherbibel*, LB)가 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로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더 이상 원본문을 반영하는 고대의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학계에 인정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읽는 본문이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권위를 넘어섰다.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우수한

3) *Novum Instrumentum* (Basel: 1516). 1516년의 제 1판에 Heinz Holeczek가 서문을 덧붙여 1986년에 같은 제목으로 다시 인쇄된 것이 있다. *Novum Instrumentum* (Stuttgart: Fromman-Holzboog, 1986).

4) *The New Testament in Original Greek*, vol. I (Cambridge / London: Macmillian, 1881). 이 성서가 출판됨으로써 수백 년 동안 교회의 공식 성서라는 영예를 차지해 왔던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학계에서 극복되었다. 이때 『영어개역』(1881)이 같이 출판되었다. 몇 년 뒤인 1898년에 출판된 네스틀레(Nestle)의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aece*)로 인해 교계에서도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극복되었다.

5)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26-27; 152-166을 참조하라.

6) 문자나 문법적 구조를 옮기는 것보다 의미, 즉 문장의 문학적 기능을 옮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번역으로 소위 “의역”이라고도 한다. 고전적인 책으로는 E. A. Nida and C.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69)를 보라.

7) KJV는 텍스트스 레캡투스를 대표하는 영어역 성서이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로는 B. M. Metzger, *The Bible in Translation: Ancient and English Versio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70-80을 보라. 보다 더 자세한 연구로는 D. Norton, *A History of the English Bible as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56-75, 188-217, 242-271, 387-429와 같은 저자의 책 *A Textual History of the King James Bib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를 보라.

본문이 더 이상 텍스투스 레캡투스가 아니라는 것이다.

텍스투스 레캡투스(또는 수용본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엘제비어가(家)의 신약성서 2판(1633)이 ‘수용’한 본문은 베자(Theodor Beza, 1519-1605)의 신약성서 1565년 판이다.⁸⁾ 베자의 신약성서는 또한 KJV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베자의 이름으로 출판된 신약성서는 모두 10판에 이르는데, 마지막 10판은 그가 세상을 뜬 후 1611년에 출판되었다.⁹⁾ 이 가운데 1598년판이 KJV의 유일한 대본은 아니었으나, 주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¹⁰⁾ 에라스무스의 신약성서를 다소 변경시킨 스테파누스(Stephanus, 1503-1559)의 신약성서 역시 KJV의 주요한 자료가 되었으며,¹¹⁾ 동시에 이것은 베자의 성서와도 매우 유사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에라스무스에서 시작되어 스테파누스와 베자를 거쳐 엘제비어에 이르도록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것들을 대본으로 번역된 성서들 역시 본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텍스투스 레캡투스’라고 한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것들뿐만이 아니다.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출판된 모든 신약성서는 텍스투스 레캡투스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¹²⁾

1.3. 에라스무스의 신약성서

1516년 3월 1일 출판되어 최초의 신약성서 출판본이라는 영예를 얻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텍스투스 레캡투스 전통의 첫 단추라고 평가할 수 있다.¹³⁾ 따라서 텍스투스 레캡투스의 기원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에라

8) Metzger an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152.

9) Metzger an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151.

10) Metzger, *The Bible in Translation*, 77, 또한 Metzger an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151-152를 참조하라.

11) Metzger, *The Bible in Translation*, 77,

12) 19세기 전반부의 락흐만(Karl Lachmann, 1793-1851)은 텍스투스 레캡투스가 아닌 본문을 제 공한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편집하였다.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21; Metzger an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170-171을 보라. 락흐만은 4세기의 본문을 재구성하려고 하였으며, 실제로 그의 목표를 성취한 인물은 티셴도르프(Constantin von Tischendorf, 1815-1874)이다.

13) 에라스무스의 신약성서가 텍스투스 레캡투스의 기초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견해는 없다. 오히려 ‘텍스투스 레캡투스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 에라스무스의 공헌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에라스무스와 베자를 연구한 Krans 역시 에라스무스의 공헌을 이와 같이 평가한다. “... his contribution to being the first representative of the *Textus Receptus*.” J. Krans, *Beyond What Is Written: Erasmus and Beza as conjectural Critics of the New Testament* (Leiden / Boston:

스무스의 신약성서 본문을 살펴볼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여러 번에 걸쳐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출판하였으며, 매 판마다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처음에는 *Novum Instrumentum* (1516)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2판부터는 *Novum Testamentum* (1519, 1522, 1527, 1535)이라는 이름으로 신약성서를 출판하였으며, 그리스어와 라틴어 본문 외에도 긴 주석을 첨부하여, 자신의 본문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편집하기 위해 그는 스위스 바젤(Basel)에 있던 사본 몇 개를 주요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이것들은 12세기 이후에 기록된 후대의 비잔틴 본문을 반영하는 사본들로 추정된다.¹⁴⁾ 그가 어떤 사본들을 사용하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바젤에 보관되어 있는 소문자사본 1번(MS 1)과 소문자사본 2번(MS 2)이 유력하며,¹⁵⁾ 요한계시록은 소문자사본 2814번(MS 2814)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⁶⁾ 하지만 그는 그리스어로 된 후대의 사본들만을 참고하지는 않았다.

사실 에라스무스의 의도는 그리스어 원본문을 재구성한다기보다는 그리스어 사본들을 토대로 당시 교회의 공식 성서였던 불가타(Vulgate)의 라틴어 본문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었다.¹⁷⁾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어 자료들을 일차적인 자료로 여긴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성서에 불가타 전통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라틴어 본문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4. 무오(無誤)한 본문?

앞에서 언급한 엘제비어의 광고 문구, “우리는 본문에다 변경되거나 잘못된

Brill, 2006), 10. 파커(D. C. Parker)는 에라스무스와 그의 동시대인들이 불가타의 라틴어 본문이 아니라 신약성서의 원어인 그리스어를 연구하였다는 데에 큰 공헌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D. C. Parker, *The Living Text of the Gosp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52.

14) 바트 어만, 『성경 왜곡의 역사』 (서울: 청림출판, 2006), 155를 참조하라. 그는 에라스무스가 4 복음서를 편집할 때 유독 하나의 사본에 의존했을 것이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편집할 때에도 또 다른 사본 하나에 크게 의존했을 것이며, 또한 요한계시록 사본은 끝부분이 훼손된 하나의 사본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15) K. Aland and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14; Metzger an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144, 148. 또한 C. C. Tarelli, “Erasmus’s Manuscripts of the Gospels”,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xlv (1943), 155-162를 보라. 그는 에라스무스가 주로 사용하였던 복음서사본은 소문자사본 2번(MS 2)이며, 이것을 다른 몇몇 사본들과 비교하였다고 추정하였다.

16) J. Krans, *Beyond What Is Written*, 54. 웨스트콧(Westcott)은 이 요한계시록 사본은 1'로 명명하였으나, 오늘날 통일된 그레고리-알란트 번호에 따르면, MS 2814이다.

17) J. Krans, *Beyond What Is Written*, 14.

것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 때문에,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일부에서는 오늘날까지도 텍스트스 레캡투스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대표적 영어역 성서인 KJV(1611년)를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¹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서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장 잘 보존하는 KJV는 절대로 무오하다는 것이다.¹⁹⁾ KJV를 변호하는 웨이트(Waite)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우수성을 지적한다.

…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첫째, 수용 본문이 줄곧 교회들이 수용해 온 전통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다. … (2) 둘째,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²⁰⁾

여기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그의 책 제목에 언급되는 ‘4중 우수성’인데, 그것은 첫째로 본문의 우수성이고, 둘째로 번역자들의 우수성이며, 셋째로 번역 기법의 우수성이고, 마지막으로 신학의 우수성이다.

그리스어 본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본 소고가 KJV의 번역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KJV의 기원이 되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의 우수성’과 ‘신학의 우수성’이라는 측면

18)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해도 하나하나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대략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무엘 C. 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질문에 답하여』 (서울: 안티오크, 1994); 도널드 A. 웨이트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인천: 그리스도 예수안에, 2006); 토마스 홀랜드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인천: 그리스도 예수안에, 2006); 에드워드 힐즈 『킹제임스 성경 변호』 (인천: 그리스도 예수안에, 2007). 이 외에도 말씀보존학회에서 “바른 성경을 찾아서”라는 시리즈로 출판되는 책들을 보라.

19) 그러나 노튼(Norton)이 지적하였듯이, 『제임스왕역본』의 본문은 1611년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정착된 것이다. 노튼은 『제임스왕역본』이 4번에 걸쳐 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D. Norton, *A Textual History of the King James Bible*, 62-127을 보라. 더군다나 그에 따르면, 『제임스왕역본』은 새로운 번역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번역들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D. Norton, *A History of the English Bible as Literature*, 60을 보라. “They [= the translators of KJV] were not pioneers but revisers. They had as bases of their work not only a variety of translations but also explicit and detailed discussion of the issues they faced.”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번역들이란 Wyclif Bible (1370년대 이후), Tyndale (1525년?), Coverdale (1535), Great Bible (1539), Geneva Bible (1560), Bishop’s Bible (1568), Rheims-Douai Bible 등을 의미한다. 특히 Tyndale의 본문이 많이 반영되었다. P. Ellingworth, “From Martin Luther to the English Revised Version”, *A History or Bible Translation*, P. A. Noss, ed. (Roma: Edizioni di storia e letteratura, 2007), 124. 그에 따르면, 『제임스왕역본』은 “원어를 참조한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또한 B. M. Metzger, *The Bible in Translation*, 71, 73, 76을 참조하라. 서문에 이것이 새로운 번역이 아니라 개정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서문이 빠져 있다.

20) 도널드 A. 웨이트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36.

에서 텍스트스 레킵투스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 후대의 비잔틴 본문을 반영하는 에라스무스의 본문

라틴어 불가타 성서의 본문을 개선하기 위해 비잔틴 계열의 그리스어 신약사본들을 참조한 에라스무스의 본문은 후대의 비잔틴 본문을 반영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2.1. 마가복음 1장 2-3절

우리말 『새번역』에서 마가복음 1장 1-4절은 다음과 같다.

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²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³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개역개정』과 『공동번역』도 이와 유사하다. 번역대본으로 삼은 그리스어 본문이 같기 때문이다.²¹⁾ 반면에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본문²²⁾을 반영하고 있는 『한글킹제임스성경』은 이 구절을 다소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²³⁾

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² **선지서들에 기록**

21) ¹ Ἀ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θεοῦ]. ²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ἐν τῷ Ἡσαΐα τῷ προφήτῃ· ἰδοὺ ἀποστέλλω τὸν ἄγγελόν μου πρὸ προσώπου σου, ὃς κατασκευάσει τὴν ὁδὸν σου· ³ φωνὴ βοῶντος ἐν τῇ ἐρήμῳ· ἐτοιμάσατε τὴν ὁδὸν κυρίου, εὐθείας ποιεῖτε τὰς τρίβους αὐτοῦ, ⁴ ἐγένετο Ἰωάννης [ὁ] βαπτίζων ἐν τῇ ἐρήμῳ καὶ κηρύσσων βάπτισμα μετανοίας εἰς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 (NTG²⁷ = GNT⁴)

22) ¹ Ἀ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² Ὡς γέγραπται ἐν τοῖς προφήταις, ἰδοὺ ἐγὼ ἀποστέλλω τὸν ἄγγελόν μου πρὸ προσώπου σου. ὃς κατασκευάσει τὴν ὁδὸν σου ἔμπροσθέν σου. ³ φωνὴ βοῶντος ἐν τῇ ἐρήμῳ· ἐτοιμάσατε τὴν ὁδὸν κυρίου, εὐθείας ποιεῖτε τὰς τρίβους αὐτοῦ. ⁴ Ἐγένετο Ἰωάννης βαπτίζων ἐν τῇ ἐρήμῳ. καὶ κηρύσσων βάπτισμα μετανοίας, εἰς ἄφεσιν ἁμαρτιῶν. (에라스무스 1판)

23) 우리의 연구는 에라스무스의 본문을 연구하는 것이나, 편의상 에라스무스의 본문을 반영하는 『한글킹제임스성경』의 본문을 소개한다. 에라스무스의 원문은 앞의 각주를 참조하라.

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네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³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였다. ⁴ 요한이 광야에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으나, 여기서 내용상 가장 분명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2절의 앞부분이다. 『새번역』에 따르면, 2절과 3절의 구약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것이다. 그런데 『한글킹제임스성경』에 따르면, 이 구약인용문의 출처는 두 개 이상의 예언서(선지서)들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절의 구약인용문이 이사야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자적인 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말라기 3장 1절을 반영하고 있다.²⁴⁾ 대문자사본들 가운데는 5세기의 알렉산드리아사본(A)과 프리어사본(W)이 “예언서들에 기록되기를”이라는 독법을 지지하며, 다수본문(ⲙ)이 또한 이 독법을 지지한다. 이렇듯 대다수의 후대 소문자사본들이 이 독법을 지지하는 반면에, 4세기의 시내사본(S)과 바티칸사본(B)을 포함한 초기의 우수한 사본들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기를”이라는 독법을 지지한다.

우리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기를”이 왜 “예언서들에 기록되기를”이라는 독법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마가복음 1장 2-3절의 구약인용문이 이사야 인용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예언서들에 기록되기를”이라는 이문이 생겨났다.²⁵⁾ 이러한 이문은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조화된 본문은 비잔틴 본문유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2.2. 마태복음 6장 9-13절

주기도문은 신약성서에 두 군데 나온다. 마태복음 6장 9-13절의 것은 상대적으로 길며, 누가복음 11장 2-4절의 것은 짧다. 그 외에 『디다케』²⁶⁾에서도 마태복

24)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새번역』

25) 그러나 이러한 조화현상이 체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마태복음 27장 9절의 경우, 구약인용문은 스가라에서 온 것인데, 마태복음은 예레미야로 보도한다. 우리가 아는 한,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교정한 것은 그리스어 사본들 가운데서는 소문자사본 21번(MS 21)과 22번(MS 22) 밖에 없다. 이 가운데 소문자사본 21번은 예레미야를 스가라가 아니라 이사야로 고쳤다. 하여간 비잔틴본문은 잘못된 정보인 예레미야를 교정하지 않았다.

26) 디다케 8장 2절에 전승되는 주기도문은 마태의 주기도문과 유사한 긴 형태이다. 디다케의 그리스어(비평)원문과 우리말 번역본이 함께 실린 정양모(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교부문헌총서 7 (예관: 분도출판사, 1993)을 보라.

음의 것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 전승된다.

⁹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¹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¹¹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¹²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¹³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번역』 마태복음 6장 9-13절

² ...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³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새번역』 누가복음 11장 2-4절

『새번역』에는 두 본문의 길이가 명확히 다르다. 크게 보면,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이 빠져 있으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가 빠져 있다. 또한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도 보이지 않는다. 3세기의 파피루스사본 75번(ⲑ75)과 4세기의 바티칸사본(B) 등의 우수한 사본들이 짧은 본문을 증거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후대 소문자사본들(ⲛ)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첨가되어 있는 긴 본문이 나타난다. 이렇듯 비잔틴 본문유형은 누가의 주기도문을 마태의 주기도문에 조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송영 부분이다. 우리말 『새번역』에는 송영 부분이 겹겹쇠로 묶여 있다. 이것은 이 부분이 원본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27판(이하 NTG²⁷)²⁷⁾에는 송영이 본문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 시내사본(Ⲙ)과 바티칸사본(B) 또 베자사본(D) 등을 포함한 많은 초기의 대문자사본들과 몇몇 소문자사본들에 송영이 빠져 있다. 또한 터틀리아누스와 오리게네스와 시프리아누스 등의 주석서 등에도 송영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초기 교회에서 예배의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기도문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삼중 형식으로 되어 있는 송영이 ... 만들어졌음”²⁸⁾을 추정할 수 있다.

27) B. Aland, K. Aland, J. Karavidopoulos, C. M. Martini and B. M. Metzger, *Novum Testamentum Graece*, 27. revidierte Aufl., 8. korrigierter und um die Papyri 99-116 erweiterter Druck,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이와 함께 같은 편집자들의 *Greek New Testament*, 4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을 참조하라.

28) B. 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14.

반면에 5세기의 프리어사본(W) 등을 포함하여 몇몇 대문자사본들과 거의 모든 후대의 소문자사본들에는 송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²⁹⁾ 물론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에도 가장 긴 형태의 송영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작은 요소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비잔틴 본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³⁰⁾

2.3. 마가복음 16장 9-21절

마가복음 16장 8절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무덤에서 뛰어나와 도망하였다. 진율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사역, 막 16:8)

우리말 『새번역』에는 8절 이후에 9-20절이 이어지지만, 이 부분이 겹겹쇠 안에 묶여 있어, 이것이 후대에 첨가된 이차적인 본문임을 가르쳐준다. NTG²⁷⁾에도 9-20절이 겹겹쇠 안에 놓여 있는데, 다만 우리말 번역과는 달리 짧은 끝도 독립적인 겹겹쇠 안에 놓여 있다.³¹⁾ 우리말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단)겹쇠 안에 묶어놓음으로써, 이 단락에 본문비평적인 문제가 있음을 가르쳐준다.

이 단락에 본문비평적인 문제가 있는 이유는, 신약성서 사본들마다 몇 가지 다른 마가복음의 종결부분을 보도하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종결을 발견할 수 있는데,³²⁾ 16절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경우가 있고(K, B 등), ‘짧은 끝’이 덧붙은 경우가 있으며(L, Ψ , 구 라틴어 번역본 k 등)³³⁾, 또 ‘긴

29) 송영이 포함되어 있는 사본들이라고 해도, 그 송영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송영과 관련된 이문들은 모두 여덟 가지가 있으며, 송영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서로 다른 일곱 개의 송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송영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D. C. Parker, *The Living Text of the Gospels*, 54-59를 보라.

30) D. C. Parker, *The Living Text of the Gospels*, 59.

31) 우리말 『새번역』에서는 짧은 끝이 각주에 소개되고 있다. “‘마가복음서의 긴 끝맺음’(16:9-20). 이 긴 끝맺음 대신에 ‘마가복음서의 짧은 끝맺음’만을 가진 사본들도 있다. ‘그 여자들은 명령 받은 모든 일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간추려서 말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시켜서,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담은, 성스러우며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

32) B. 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97-101. 또한 R.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103-104를 보라. 자세히 나누면 여섯 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D. C. Parker, *The Living Text of the Gospels*, 124-128을 보라.

33) 구 라틴어 번역본 k를 제외하면, 나머지(L, Ψ 등)는 짧은 끝과 긴 끝(9-20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끝’이 덧붙은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확대된 긴 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W).

우선 외적판단기준³⁴⁾을 따를 때, 고대의 우수한 사본들(8, B 등)이 9-20절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후대에 첨가된 본문일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에라스무스의 본문에 나오는 긴 끝을 지지하는 사본들은 다수본문(21)으로 집약될 수 있는 대다수의 후대 사본들이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 5세기의 알렉산드리아사본(A)과 에브라임 재생사본(C)과 베자사본(D) 등 적지 않은 대문자사본들도 긴 끝을 지지한다. 이레니우스와 유세비우스와 제롬 같은 교부들도 긴 독법을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만의 증거로는 마가복음 16장 9-20절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두 증거군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8세기의 레기우스사본(L)과 8/9세기의 아투스사본(Ψ), 또 7세기의 대문자사본 099번(MS 099)과 6/7세기의 대문자사본 0112번(MS 0112) 등이 짧은 끝과 긴 끝을 동시에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본들이 긴 끝을 보도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결코 긴 끝의 진정성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짧은 끝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긴 끝의 진정성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따라서 외적판단기준에 따를 때, 16장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나는 것이 다소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내적판단기준을 따를 때에는 긴 끝이 이차적인 첨가라는 사실이 보다 명확하게 논증된다. 어색하게 끝나는 마가복음의 끝(16장 8절: “ἐφοβούντο γάρ.”)이 추가적인 종결문구가 생겨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짧은 끝이 생겨나기도 했고, 또 긴 끝이 생겨나기도 했다. 더군다나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7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만다. 또한 초기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현현전승과 승천전승이 마가복음 16장 8절 이전에는 빠져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보충적인 종결문구가 마가복음의 끝에 덧붙게 된 것이다.

그런데 KJV와 그것의 기원이 되는 에라스무스의 신약성서에는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 긴 끝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러하다.

복음서가 이곳에서 그렇게 갑자기 끝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 복음서가 결코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도 성경의 영감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므로 결코 논리적이지 않다. ... 원래의 결말이 손실되었다는 것은 성경 보존 교리를 확실히 부인하는 것이다.³⁵⁾

34) 외적판단기준과 내적판단기준에 대한 소개는 Metzger an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305-315를 보라. 메츠거는 외적판단기준을 소개하면서 소위 “본문유형”에 대해 논하는데, “본문유형”에 대한 비판적인 논증은 민경식 “초기 신약성서 단편사본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신약논단』 12권 (2005), 157-196, 특히 162-174를 보라.

이러한 주장은 성서 본문을 근거로 교리를 정하는 것과는 반대방향 즉 어떤 특정한 교리(여기서는 소위 “성경보존의 교리”)를 근거로 성서의 본문을 규정하려는 시도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에라스무스가 긴 끝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그가 사용하였던 사본들이 비잔틴 계열의 후대 사본들이었기 때문이며, 이 사본들로 인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필두로 텍스트스 레킵투스는 비잔틴본문의 수호자가 되었다.

3. 불가타 성서의 영향을 받은 에라스무스의 본문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신약성서는 비잔틴본문(또는 다수본문, **m**)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당시 교회의 권위 있는 본문이었던 불가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3.1. 요한계시록 22장 16-21절

에라스무스는 요한계시록 사본을 단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독일 아우구스부르크 대학교에 보관되어 이 사본(MS 2814)은 요한계시록 22장 16-21절이 들어있어야 하는 마지막 장이 훼손되어 있다. 이에 에라스무스는 다른 요한계시록 사본을 구하는 대신에 라틴어 본문을 그리스어로 역(逆)번역하였다. 그리하여 이전까지 그리스어 본문 전통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이문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이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새번역』

καὶ ἕάν τις ἀφέλῃ ἀπὸ τῶν λόγων τοῦ βιβλίου τῆς προφητείας ταύτης, ἀφελεῖ ὁ θεὸς τὸ μέρος αὐτοῦ ἀπὸ τοῦ ξύλου τῆς ζωῆς καὶ ἐκ τῆς πόλεως τῆς ἁγίας τῶν γεγραμμένων ἐν τῷ βιβλίῳ τούτῳ. NTG²⁷

우리말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 또 영어의 RSV, NIV 등 대다수의 번역들이 이와 유사하다. 그런데 에라스무스의 본문을 반영하는 『한글킹제임스성경』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있다.

35) 토마스 홀랜드,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111.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글킹제임스성경』

καὶ ἐάν τις ἀφαιρῆ ἀπὸ τῶν λόγων βίβλου τῆς προφητείας ταύτης, ἀφαιρήσει ὁ θεὸς τὸ μέρος αὐτοῦ ἀπὸ βίβλου ζωῆς, καὶ πόλεως ἀγίας, καὶ τῶν γεγραμμένων ἐν βιβλίῳ τούτῳ. 에라스무스의 *Novum Instrumentum* (1516)

19절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차이점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생명나무에서(= ἀπὸ τοῦ ξύλου τῆς ζωῆς)”(NTG²⁷)와 “생명의 책에서(= ἀπὸ βίβλου ζωῆς,.)”(에라스무스)이다. 그리스어 사본전통에서는 에라스무스의 본문과 같은 독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독법은 에라스무스가 불가타 라틴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생긴 이문이다. 에라스무스의 신약성서에 포함된 라틴어 본문은 아래와 같다.

et si quis diminuerit de verbis libri prophetiae huius, auferet Deus partem eius
de ligno vitae et de civitate sancta, et de his quae scripta sunt in libro isto

“de ligno vitae”가 “ἀπὸ βίβλου ζωῆς”로 번역되었고, 이것이 다시 “생명의 책에서”(KJV: out of the book of life)로 번역되었다. 라틴어 전통에서만 발견되는 이 이문은 라틴어로 “나무에서”(de ligno)와 “책에서”(de libro)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NTG²⁷ 그리스어 본문에는 두 번의 정관사가 나타난다(ἀπὸ τοῦ ξύλου τῆς ζωῆς). 에라스무스의 본문에 정관사가 생략된 것은 정관사가 없는 라틴어의 언어적 특징 때문이다. 관사가 없는 라틴어 대본을 번역하면서 그리스어에도 정관사가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에라스무스의 이문이 불가타의 영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2. 요한일서 5장 7-8절

에라스무스의 *Novum Instrumentum* (1516)에는 요한일서가 다음과 같다.

⁷ ὅτι τρεῖς εἰσιν οἱ μαρτυροῦντες, ⁸ τὸ πνεῦμα καὶ τὸ ὕδωρ καὶ τὸ αἶμα,
καὶ οἱ τρεῖς εἰς τὸ ἓν εἰσιν.

⁷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⁸ 영과 물과 피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입니다. (사역)

에라스무스의 *Novum Testamentum* 2판(1519)에서도 이 본문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오늘날의 NTG²⁷나 우리말 『개역개정』, 『새번역』, 또 『공동번역』도 이러한 짧은 형태의 본문을 보도한다. 그런데 에라스무스의 *Novum Testamentum* 3판(1522)에서 이 본문이 다음과 같이 긴 형태로 확대되었다. 확대된 긴 본문은 스테파누스와 베자의 신약성서와 KJV 같은 이후의 텍스트스 레킵투스에 유입되어 정착되었다.

⁷ ὅτι τρεῖς εἰσιν οἱ μαρτυροῦντες ἐν τῷ οὐρανῷ, ὁ πατήρ, ὁ λόγος, καὶ τὸ Ἅγιον Πνεῦμα· καὶ οὗτοι οἱ τρεῖς ἓν εἰσιν ⁸ καὶ τρεῖς εἰσιν οἱ μαρτυροῦντες ἓν τῇ γῆ, τὸ πνεῦμα καὶ τὸ ὕδωρ καὶ τὸ αἷμα καὶ οἱ τρεῖς εἰς τὸ ἓν εἰσιν.

⁷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⁸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한글킹제임스성경』

기독교의 핵심교리 가운데 하나인 삼위일체를 가장 분명하게 증언하는 이 본문, 요한의 콤마(comma Johhaneum)라고 불리는 이 긴 본문은 대다수의 그리스어 사본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 본문이 들어있는 그리스어 사본들은 모두 소문자사본들로서 MS 61, MS 88, MS 221, MS 429, MS 629, MS 636, MS 918, MS 2318, MS 2473 등 몇 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네 개의 사본(MS 88, MS 221, MS 429, MS 636)에는 확대된 본문이 16세기 이후의 필체로 난외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소문자사본 629번(MS 629, 14세기)을 제외한 나머지는 16세기 이후의 사본들이다.³⁶⁾ 그러므로 소문자사본 629번(MS 629)을 제외하면, 긴 본문을 증거하는 모든 사본들이 에라스무스의 신약성서 출판과 함께 시작된 논쟁 가운데, 의도적으로 확대된 본문을 삽입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 14세기의 소문자사본 629번(MS 629)도 라틴어 본문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³⁷⁾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해 보이는 이러한 본문이 원본문이라면, 대다수의 사본들에서 이것이 삭제된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다.

에라스무스는 초판(1516)과 재판(1519)에서 그리스어 본문 전통에 따라 짧은 본문을 선택하였지만, 3판(1522) 이후부터는 긴 본문을 선택하였으며, 긴 본문은

36) MS 61과 MS 918은 16세기의 사본이고, MS 2473은 17세기, MS 2318은 18세기의 사본이다.

37) 긴 본문에 대한 그리스어 사본의 지지는 미미하지만 라틴어 사본들의 지지는 강하다. 또한 그리스 교부 가운데서 긴 본문을 지지하는 교부가 없고, 라틴어를 제외한 모든 고대 번역본 사본들에도 긴 본문이 없으며, 제롬의 불가타 사본에도 없는 것으로 보아, 후대의 라틴어 신약성서 필사 전통 가운데 생겨난 이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B. 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626-628; R.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512-513을 보라.

스테파누스와 베자를 비롯한 텍스트스 레킵투스의 본문으로 선택되었고, KJV에도 반영되었다. 요한의 콤마는 텍스트스 레킵투스가 라틴어 본문의 영향을 받은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텍스트스 레킵투스가 항상 비잔틴본문(또는 다수본문)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그리스어 본문을 선택하기보다는 라틴어를 역번역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경우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17절, 20절, 3장 12절, 6장 11절, 22장 11절 등이다.³⁸⁾ 에라스무스 스스로 경우에 따라서는 라틴어 본문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하였다³⁹⁾ 이것은 올바른 인식이다. 마태복음의 주기도의 송영에서 볼 수 있듯이 불가타 성서가 비잔틴 전통보다 더 오래된 본문을 담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4. 교리적으로 우수한 텍스트스 레킵투스

텍스트스 레킵투스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논거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교리적 우수성이다. 텍스트스 레킵투스야말로 교리적으로 가장 적절한 본문을 제공하기 때문에, 텍스트스 레킵투스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다.⁴⁰⁾ 교리적 또는 신학적 우수성이 원본문 구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누가복음 2장 33절

누가복음 2장 33절에서 우리말 『개역개정』과 『공동번역개정』과 『새번역』, 영어의 NIV, RSV 등은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보도함으로써, NTG²⁷의 본문을 반영하고 있다.

³³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새번역』

³³ καὶ ἦν ὁ πατὴρ αὐτοῦ καὶ ἡ μήτηρ θαυμάζοντες ἐπὶ τοῖς λαλουμένοις

38) Jan Krans, *Beyond What Is Written*, 54-55.

39) Jan Krans, *Beyond What Is Written*, 17을 보라. 에라스무스는 2판(1519)에서 로마서 11장 6절의 이문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문에는 여전히 긴 비잔틴 독법을 유지하지만, 이 긴 독법보다 불가타의 짧은 독법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40) KJV이 신학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널드A. 웨이트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114-161을 보라.

περὶ αὐτοῦ. NTG²⁷

반면에 텍스트스 레캡투스 전통의 신약성서들은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로 보도하지 않는다. 에라스무스의 본문도 여기에 속한다

³³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한글킹제임스성경』

³³ καὶ ἦν Ἰωσήφ καὶ ἡ μήτηρ αὐτοῦ θαυμάζοντες ἐπὶ τοῖς λαλουμένοις
περὶ αὐτοῦ. 에라스무스의 *Novum Instrumentum* (1516)

대다수의 소문자사본들과 알렉산드리아사본(A) 등 일부 대문자사본들도 “그(예수)의 아버지”라는 독법 대신에 “요셉”이라는 독법을 지지한다.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텍스트스 레캡투스는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로 묘사하지 않으므로써 ‘예수의 동정녀 탄생 교리’에 적절한 본문을 제공한다⁴¹⁾ 그러나 4세기의 시내사본(Σ)과 바티칸사본(B), 5세기의 베자사본(D)과 프리어사본(W), 그 외의 적지 않은 사본들이 “그의 아버지”를 지지한다. 이렇게 외적판단기준에 따를 때, “그의 아버지”가 더 유력하며, 내적판단기준을 따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필사자들은 교리적으로 적절한 본문을 교리적으로 어렵게 고치는 경향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리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본문비평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마태복음 24장 36절

41) 교리적으로 적절한 본문을 제공한다는 것과 교리적인 이유로 변개가 일어났다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연하게 변개가 일어난 후에, 그것이 교리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필사자들이 그 독법을 선호한 경우라면, 엄밀한 의미에서 교리적 변개라고 할 수 없다. 누가복음 2장 33절이 좋은 사례이다. 물론 어만(B. Ehrman)같은 학자는 이것을 교리적인 변개로 본다. B. D. Ehrman, *The Orthodox Corruption of Scripture: the Effect of Early Christological Controversies o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55-56. 그러나 이것은 교리적인 변개가 아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문제가 되는 27절(예수의 부모)과 47절(예수의 부모), 또 48절(예수의 아버지)은 거의 교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36-37을 보라. 또한 K. Wachtel, “Zur Entstehung und Ausbreitung von Varianten in der handschriftlichen Überlieferung des Neuen Testaments”, *Münstersches Logbuch zur Linguistik 6: Philologische Beiträge* (1999), 84-85를 보라, 교리적인 이유로 본문을 변개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문의 발생 원인을 교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Kyoung Shik Min, *Die früheste Überlieferung des Matthäusevangeliums (bis 3./4. Jahrhundert): Edition und Untersuchung* (Berlin / NY: Walter de Gruyter, 2005), 296-305를 참조하라.

NTG²⁷의 본문을 반영하는 우리말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의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교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제공한다.

³⁶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새번역』

³⁶ Περὶ δὲ τῆς ἡμέρας ἐκείνης καὶ ὥρας οὐδεὶς οἶδεν, οὐδὲ οἱ ἄγγελοι τῶν οὐρανῶν οὐδὲ ὁ υἱός, εἰ μὴ ὁ πατὴρ μόνος. NTG²⁷

“아들도 … 아니다”(οὐδὲ ὁ υἱός)는 4세기의 시내사본(Σ)⁴²과 바티칸사본(B), 5세기의 베자사본(D) 등 초기 대문자사본들에 포함되어 있지만 비잔틴 계열의 다수본문(ⲙ)에는 빠져 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마태가 보도하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는 것은 교리적인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일부 필사자들은 “아들도 … 아니다”를 삭제하였을 것이다.⁴³ 이것이 교리적 변개의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스테파누스의 신약성서라든지 KJV 등 텍스투스 레킵투스 전통에 속하는 대다수의 신약성서들이 다수본문(ⲙ)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의 신약성서만은 예외적으로 “아들도 … 아니다”를 본문에 포함하고 있다.⁴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에라스무스 신약성서가 일반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절한 본문인 후대의 비잔틴본문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항상 교리적으로 우수한 본문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에라스무스는 많은 경우에 오히려 교리적으로 부적절한 어려운 독법을 선호하기도 하였다⁴⁵

5. 결론

1516년 3월 1일, 에라스무스는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인쇄본을 공식적으로 출판하였다.⁴⁶ 그는 그리스어 사본 전통에 따라서 불가타의 라틴어 본문을 개

42) 시내사본(Σ)의 경우는 흥미롭다. 4세기의 원래의 필사자가 “아들도 … 아니다”를 썼는데, 4-6세기 사이의 첫 번째 교정자가 이것을 지웠고, 7세기의 두 번째 교정자가 다시 되살렸다.

43) 그리스어 구문도 “아들도 … 아니다”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B. 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50; R. O. H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43-44.

44) Περὶ δὲ τῆς ἡμέρας ἐκείνης καὶ ὥρας οὐδεὶς οἶδεν, οὐδὲ οἱ ἄγγελοι τῶν οὐρανῶν οὐδὲ ὁ υἱός, εἰ μὴ ὁ πατὴρ μόνος.

45) J. Krans, *Beyond What Is Written*, 188. 또한 40-50을 보라. 여기서 그는 에라스무스의 편집 원리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독법을 선택하는 것이었음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논증한다.

46) 물론 1514년 스페인의 주교 히메네스(Francisco Ximenes de Cisneros, 1437-1517)가 신약성서 인쇄본 출판 준비를 이미 마쳤으나, 교황의 재가를 기다리는 사이에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의

선하고 발전시키려고 하였으며,⁴⁷⁾ 그래서 당시 바젤에서 구할 수 있었던 12세기의 몇몇 소문자사본들을 토대로 라틴어 본문을 개정하며 그리스어 본문을 재구성하였다. 그런데 그가 사용하였던 사본들이 비잔티 계열의 사본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약성서는 일반적으로 비잔틴 계열의 그리스어 본문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의 신약성서는 불가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신이 사용하였던 그리스어 사본이 불완전한 부분에서는 불가타의 본문을 받아들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타 본문을 토대로 그리스어 본문을 교정하기도 하였다.

텍스투스 레셉투스의 효시가 된 그의 신약성서는 분명히 KJV과는 다르며, 또한 텍스투스 레셉투스 전통에 속하는 16-19세기의 다른 신약성서들과도 차이점을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세련된 문장과 교리적으로 적절한 본문을 제공하지만 때때로 교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본문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우수한 본문을 재구성하는 데 에라스무스의 일차적인 관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등장으로 로마카톨릭(불가타의 라틴어 본문)과 개신교(그리스어 텍스투스 레셉투스)가 갈라서게 될 준비가 되었다.

<주요어>(Keywords)

에라스무스, 텍스투스 레셉투스(공인본문), 신약성서, 사본, 개정, 본문.
Erasmus, *Textus Receptus*, New Testament, Manuscript, revision, text.

신약성서가 먼저 출판되었다.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152-153을 보라.

47) Krans, *Beyond What Is Written*, 13.

* 참고문헌(References)

- Aland, K. and Aland, B.,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 Aland, B., Aland, K., Karavidopoulos, J., Martini, C. M. and Metzger, B. M., *Novum Testamentum Graece*, 27. revidierte Aufl., 8. korrigierter und um die Papyri 99-116 erweiterter Druck.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Greek New Testament*, 4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Ellingworth, P., "From Martin Luther to the English Revised Version",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P. A. Noss, ed., Roma: Edizioni di storia e letteratura, 2007.
- Ehrman, B. D., 『성경 왜곡의 역사』, 민경식 역, 서울: 청림출판, 2006.
- Erasmus, D., *Novum Instrumentum*, Basel: Froben, 1516. (= *Novum Instrumentum*. Stuttgart: Fromman-Holzboog, 1986).
- Novum Testamentum*. ²1519, ³1522.
- Gipp, S. C.,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질문에 답하여』, 서울: 안티오크, 1994.
- Hills E. F., 『킹제임스 성경 변호』, 인천: 그리스도 예수안예, 2007.
- Holland, T.,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인천: 그리스도 예수안예, 2006.
- Krans, J., *Beyond What Is Written: Erasmus and Beza as Conjectural Critics of the New Testament*, Leiden; Boston: Brill, 2006.
- Metzger, B. M.,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 Metzger, B. M. and Ehrman, B. D.,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4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Min, K. S., *Die früheste Überlieferung des Matthäusevangeliums (bis 3./4. Jahrhundert): Edition und Untersuchung*,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 Nida, E. A. and Taber, C. 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1969.
- Norton, D., *A History of the English Bible as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Norton, D., *A Textual History of the King James Bible*, Cambridge: Cambridge

- University Press, 2005.
- Omanson, R.,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Parker, D. C., *The Living Text of the Gosp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Tarelli, C. C., “Erasmus's Manuscripts of the Gospels”,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xliv (1943), 155-162.
- Waite, D. A.,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인천: 그리스도 예수안에, 2006.
- Westcott, B. F., and Hort, F. J. A., *The New Testament in Original Greek*, 2 vols. Cambridge / London: Macmillian, 1881.
- 민경식,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민경식, “초기 신약성서 단편사본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신약논단」, 12권 (2005), 157-196.
-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교부문헌총서 7, 왜관: 분도출판사, 1993.

<Abstract>

Some Observations on the Origin of the Textus Receptus
- Characteristics of the Text of Erasmus -

Prof. Kyoung Shik Min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some textual characteristics of Erasmus' Greek New Testament which is the first representative of the *Textus Receptus*.

In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Erasmus published the first editi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Novum Instrumentum*, 1516) which was followed by his several subsequent editions (*Novum Testamentum*, 1519, 1522, 1527, 1535). He did not claim his text to be "original", nor "inspired", but intended to improve the Latin Vulgate text. Therefore, he collated some Greek Manuscripts and revised the Latin text. Because he used Greek minuscules of the 12th century Byzantine tradition, his text showed som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

Erasmus' text, however,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Latin Vulgate which has been the authoritative text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Where his Greek Manuscripts were damaged, he back-translated the Latin Vulgate text into Greek. Where the Greek text was dubious, he corrected this per the Latin text.

Though Erasmus' Greek New Testa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presentatives of the *Textus Receptus*, a careful investigation reveals some degree of divergence from other texts in the tradition: in general, it offers theologically adequate readings like other members in this tradition, but in some cases, Erasmus preferred harder readings in terms of theology. He did not intend to reconstruct a theologically superior text, but to improve the Vulgate text.